

현대 PR의 맹아기 : 미 군정청 민간공보처의 조직과 활동

신인섭 /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1. 서문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 후 9월 8일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 24군단이 서울에 진주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3년의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그런데 하지 장군이 군 조직에 있는 공보 조직과 별도의 PR 조직을 두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1)

하지 장군(주한 미 24군단장, 육군중장)은 미국의 목표에 대해 의심하는 한국인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 국민에게 미국 국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한국을 지배할 의사가 없을 뿐더러 한국과 우호국이 되기를 원하며 한국이 굳건한 독립 국가가 되도록 도우려 한다는 것을 한국 국민 스스로가 알게 되기를 바랐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민간공보처가 설립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주한 미군 사령관 일반명령(General Order, 1947, 5, 30) 10호로 민간공보처(Office of Civil Information, OCI)라는 특별 참모부가 한 조직으로 설립되었다. 다만 민간공보처는 24군단 소속부서는 아니었다. 2)

2. 민간공보처(OCI)에 대한 연구의 필요와 이 연구의 목적

한국에 Public Relations 라는 낱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각주 1에 나오는 주한 미 24군단 G-2(정보과)의 문서이다. 그리고 OCI의 기구, 각 부서별 담당업무, 실시한 업무 등을 보면 그것이 현대 PR 전문조직이 하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대로 OCI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한국에서 현대적 PR의 역사를 밝히는 데에 OCI연구는 필수적일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필요를 충족할 내용도 아니고, 그럴 의도도 아니다. 오직 OCI가 언제 어떻게 탄생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의 일부를 소개해서 앞으로 본격적인 연구에 적으나마 도움이 되고자 할 뿐이다.

3. 문헌연구

미 군정의 공보정책에 관한 연구와 특히 OCI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아마도 첫 연구는 박권상이 1968년 가을호 신문평론에 쓴 “미 군정하의 신문, 자료를 중심으로”일 것이다. 1986년 8월호 신문과 방송에는 “특집: 미군정기의 한국 언론 - 신문”이 있고, 그 가운데 김민환의 “신문의 실상과 언론사적 의미”가 있으며 “미군정기 한국 언론..48인의 체험 증인”이라는 상당한 분량의 증언기록이 있다. 그 뒤 박권상의 “미 군정 하의 한국 언론에 관한 연구(상, 하)”가

1987년 10월, 11월호 <신문과 방송>에 연재되었다. 다시 김민환의 “미군정 공보 기구의 언론 활동”은 1991년 5월호 <신문과 방송>에 발표되었다. 김민환이 OCI에 관한 상당히 자세한 내용을 발표한 것은 1991년 발표된 논문이었다. 3) 이밖에도 정진석의 연구와 이선영이 1981년 고려대학 대학원 석사 논문 “미 군정의 언론정책에 관한 연구” 등이 산견된다.

박권상과 김민환의 논문은 주로 공보정책의 입장에서 다룬 연구인데 그것은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일이었다. PR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일반화하기 시작한 시기를 1990년대 이후라고 본다면 OCI활동을 PR의 일부로 연구하기에는 1990년대 이전은 아직 시기상조였다.

4. OCI의 기구와 각 부서별 업무

영문과 국문으로 된 기구도는 붙임 #1과 #2에 나와 있다. 총 인원은 미국인 37명 (문과 24명, 장교 3명, 사병 10명)과 한국인 76명으로 합계 113명이었다. 따라서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참조: 붙임 #3의 인원 표) 붙임 #2의 우리말로 옮긴 기구표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분석, 농업, 문화, 경제, 정치과는 처장 직속 하에 있었다. 부처상 소관은 보급, 경리, 지부 조정, 연설, 이동교육, 배포 및 각종 홍보물을 만드는 업무를 맡은 제작 부서가 있었다. 달리 보면 처장은 정책, 부처장은 실무를 맡은 셈이었다.

붙임 #3에는 각 부서별 담당 업무가 나와 있는데 처장 직속 하에 있는 조사, 분석지부의 업무를 보면 “2. 한국 여론의 추세 분석과 해석”, “3. 제작부서가 필요로 하는 자료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 그리고 “4. 한국 측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조사”라는 것이 있어서 조사가 필수적인 것으로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부서별 업무를 통해 현대적인 PR 방법이 이미 도입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OCI는 사실상 미군정 시기에 한국에서 공보부의 역할을 했다. OCI가 실시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이동교육반이 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영화 및 사진 전시가 있는데, 1947년 9월 13일 -17일 기간에 순회한 경북 영일군과 경주군 34개 동리 이름이 나와 있다. 또한 제5현지방 문반이라고나 할 (5th Field Operation) 부서가 담당한 경북 포항, 경주 지역에 대한 자세한 지도가 있다(붙임#4,#5). 아울러 OCI가 발행한 주간 농민(Farmer's Weekly)에 대한 면담 조사 결과도 있다. (붙임#6)

5. 결론

미군정청의 PR부서로서 OCI가 한 일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OCI 처장은 주한 미군 부장이었고 아울러 대한민국정부 공보처 고문이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에 Public Relations라는 낱말을 처음으로 소개한 것이 OCI(붙임#8)였다.

- 1) RG 332, US Army Forces in Korea,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Records Regarding USAMGIK, U.S.-U.S.S.R. Relations in Korea, and Korea Political Affairs, 1945-48, Box 42(수집번호02011280) 2 of 4. HISTORY OF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30 MAY 1947 THROUGH 30 JUNE 1984. p.7. (USAMGIK는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의 줄임 말이며 주한 미군정청을 말한다.)
- 2) 위의 자료 7쪽. OCI의 공식 번역은 dajt이며 필자가 임의로 “민간공보처”로 번역했다. 박권상은 <신문과 방송> 1987년 11월호 66쪽에 OCI를 “민사정보처”라고 번역했다.
- 3) 박권상의 논문은 <신문과 방송> 1987년 10월호 (No.202) 63-76쪽, 같은해 11월호(no.203)61-68쪽. 김민환의 논문은 같은 잡지 1991년 5우러호 42-49쪽.

붙임-그림

- 1-Office of Civil Information 기구도(영문)
- 2-OCI기구(번역문)
- 3-OCI인원 및 조직과 임무
- 4-6 OCI 활동 가운데 한가지인 지방 순회 활동 상황
- 7-국사편찬위원회의 수집 자료 표지
- 8-Public Relations라는 말이 나오는 OCI 자료